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발전하는 허영롱입니다.



허영롱 1990년 (33세/만 31세) | 여

- 010-9418-7237
- **\(010-9418-7237**
- □ (42929)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7길

학력사항	경력사항	희망연봉	희망근무지/근무형태	포트폴리오
대학교(2,3년) 졸업	경력 6년 3개월	회사내규에 따름	정규직	http://github.com/yeongr120

학력 최종학력 대학교 2,3년 졸업

재학기간	구분	학교명(소재지)	전공	학점
2009.03 ~ 2011.02	졸업	대구산업정보대학 (대구)	외식창업전공	3.9 / 4.5
2006.03 ~ 2009.02	졸업	하양여자고등학교	문과계열	-

경력 총 6년 3개월

근무기간	회사명	부서/직급/직책	지역	연봉	
2020.01 ~ 2021.11 (1년 11개월)	뚜레쥬르	뚜레쥬르 제빵기사 / 사원	대구	-	
	(담당업무) 빵, 케익 생산 및 위생관리 (퇴사사유)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				
2018.05 ~ 2018.11 (7개월)	팔공티앤씨	웹디자인 / 주임	대구	-	
V-112/	담당업무 제품 사진촬영 및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작업, 신상품 등록 퇴사사유 개인사정				
2015.03 ~ 2017.11 (2년 9개월)	㈜포스아트	웹디자인 / 사원 / 3년차	경북	-	
(CC 112)	담당업무 제품 사진촬영 및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작업 퇴사사유 개인사정				
2014.11 ~ 2015.02 (4개월)	㈜프라임	사원	대구	-	
	담당업무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작업 및 제품 사진촬영 되사사유 경영악화				
2014.03 ~ 2014.10 (8개월)	제이제이비엔에스	사원 (팀원)	대구	-	

담당업무 SNS 관리 사이트 전반적인 배너 수정 및 제작

퇴사사유 개인사정

대외활동

기간	구분	기관/장소	내용
2022.03.15 ~ 2022.08.30	교육이수내역	그린아트컴퓨터학원	기업 요구를 반영한 PHP 풀 스택(프론트 엔드 + 백 엔 드) 개발자 양성 과정

자격증/어학/수상내역

취득일/수상일	구분	자격/어학/수상명	발행처/기관/언어	합격/점수
2019.04	자격증/면허증	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	한국산업인력공단	최종합격
2010.12	자격증/면허증	제빵기능사	한국산업인력공단	최종합격
2022.04	자격증/면허증	리눅스마스터2급	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	1차합격
2011.03	자격증/면허증	2종보통운전면허	경찰청(운전면허시험관리단)	최종합격

보유기술

	보유기술명/수준/상세내용
JavaScript / 하	
MY-SQL / 하	
PHP / 하	
CSS3 / 하	
HTML5/하	

포트폴리오/기타문서

파일 구분	파일명
포트폴리오	http://github.com/yeongr1203

자기소개서

['삶에 있어 배움에는 끝이 없고, 배움으로서 성장한다.]

제가 제빵 기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, 입사 전부터 퇴사할 때 까지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. 입사 전에는 입사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고, 입사 후에는 매달 출시되는 신제품이 많아 신제품 출시 일이 다가오면 사전 공부를 했습니다. 메뉴얼 대로 만들다 보면 빵이 조금 더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회사 모든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노력한 만큼 예쁜 색의 빵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.

그때의 습관대로 학원에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 거부감 없었고 에러가 나더라도 가만히 있기 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나 같이 배우는 친구들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도 하고 문제 풀이도 했습니다. 또한 수업이 끝난 후에는 남아서 오늘 한 수업을 복습하고 집에서도 자기전에 잊지 않고 복습한 결과, 지금은 혼자서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. 그리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다른 동기들의 에러도 찾아 봐주고 저와 다른 풀이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운 뒤에 다시 한 번 적어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.

저는 어려움이 있다 하여 힘들어 하기보다는 더 성장하기 위해 끝없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기에 끝없이 성장할 자신이 있습니다. 개발자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에러를 만나겠지만 앞에서 노력한 것만큼 꾸준한 노력으로 에러를 처리 할 것이며,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는 좋은 동료이자 개발자로 성장할 것입니다.

[타인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]

저는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.

"'입은 하나라서 한 번을 말하지만 귀는 두 개라서 두 번 듣는다" 라는 말이 있듯이 소통을 할 때는 말도 중요하지만 공감과 경청 역시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.

저의 소통이 빛을 낼 수 있었던 최근 사례를 든다면, 학원 수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의 사람들과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. 진도가 나갈 수록 수업 복습하는 것 만으로 힘이 들고 스터디까지 따로 하다 보니 더 힘들었고, 실력 차이 때문에 지쳐가는 동기들이 생겼습니다. 처음 스터디를 시작할 때는 힘내서 서로 도와가며 잘 해보자는 취지로 복습 위주의 스터디활동이었는데 점점 복습보다는 심화 학습으로 취지가 변경이 된 것 같다 등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 미안해서 스터디를 나가겠다는 친구도 생겼습니다.

그 때, 너무 힘들어 하던 친구에게 지금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었지만 스터디 활동은 유지하는 것이 <mark>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</mark>는 생각에 친구에게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실력이 차이가 나지만 분명 배우는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사람에게도 공부하는 <mark>기회가 되는 것이라서</mark> 우리 포기 하지 말고 이어 나가자고 설득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는 나가지 않고 스터디에 남게 되었고, <mark>또한</mark> 스터디 팀 원들의 의견을 모아 요일을 정하고 복습과 심화 등 파트를 나누어 자유롭게 스터디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.

타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내 주장만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공감해주고 내 주장을 하였을 때 상대가 내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이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. 공감이라는 말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과 함께 다른 의견도 함께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 시키는 힘이며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에 회사 내에서 <mark>문제 없이</mark>잘 지낼 수 있고,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할 중 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.

[입사 후 포부]

입사 후 적극적인 회사 생활을 하여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하고, 제 역량을 성장 시키겠습니다.

마지막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웹 크롤링 기능이 필요로 했는데, 그때 파이썬을 사용하니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.

파이썬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, 입사 후에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파이썬을 포함한 더 많은 언어들을 배우겠습니다. 개발자의 역량을 키우는 일은 더 많은 언어를 배우고 많은 코드를 접하며, 많은 에러를 만나 그 에러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, 언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빅 데이터, AI 까지 활용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.